

**ART DECO의 조형성에 관한 분석 연구**  
**-'戰爭과 平和'에서 살펴본 입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s of Art Deco  
-Especially Analyzed in War and Peace-

**박규현(Kyu-hyun, Park)**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 서론

2 아르 데코의 발생

- 2-1. 발생의 근원과 배경
- 2-2. 발생의 요소와 근거 : < 전쟁과 평화 >

3. 아르 데코의 양식

- 3-1. 양식의 근원
- 3-2. 양식의 분석

IV. 아르 데코의 작품들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t is very significant to study a dominant drift of the contemporary formative art. And it's research not only gives us a great pleasure of study but also will be a big help for designers to study how the dominant drift of the contemporary art has developed thereafter, and what it has influenced upon the following formative movement of it. In this sense I think I cannot emphasize it too strong that I gave a subtitle 'Especially analyzed in War and Peace' do my paper because we can find a real aspect of the formative movement rather by sociological point of view than by formative art itself. In this sense, I selected Art Deco as a thesis of research among other things because Art Deco developed socially in respond to general pressure to adapt to modern World, specially, was a stage in an already burgeoning revolution in the decorative arts. Through this sociological point of view on Art Deco I found lots of things worthwhile to research it. Art Deco, which I think shows us a special aspect of the sandwich culture between both world wars in Europe, played the important role of a bridge linking its peculiar style with those of contemporary arts in Europe. In this paper the sociological research of Art Deco style will reveal what the European's emotions meant in the socio-psychological circumstances of Art Deco between both world wars, and where the peculiarity of Art Deco style came from, and especially why the colors of Art Deco was so gorgeous as called 'color for color's sake'. I tried to put the importance of research of Art Deco largely on the sociological or socio-psychological points of view not on the only formative viewpoints.

I could draw a conclusion that Art Deco has a contradictive duplicity in its style that can be expressible in a word like 'naivety in gorgeousness, simplicity in complexity, orderliness in confusion, and peacefulness in noisiness.'

(Keywords)

sociological viewpoint, wars, gorgeous color, geometric lines, femininity.

## 1. 서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형사조를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다. 그것은 한 시대의 중심적 조형사조가 그 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다음 시대에 끼치는가에 흥미를 줄뿐만 아니라, 후세에 당시의 조형사조에 관한 많은 연구과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이차대전 사이의 사회적 혼란기에 전구라파와 미국을 풍미했던 아르 데코에 대한 조형사조의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목의 부제 '전쟁과 평화를 중심으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전쟁이 몰고 온 유럽의 회생과 황폐화, 그 위에 평화를 재건하려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그것들의 몸부림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아르 데코의 조형정신은 분명히 조형의 다른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들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조형사조의 연구는 대부분 순수한 조형심리학적 바탕에서 연구되었거나 아니면 교육학적 경향의 측면에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별히 사회학적 바탕에서 그것도 '전쟁과 평화'란 부제를 가지고 연구된 것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그만큼 전쟁과 평화가 주는 이원적 모습이 아르 데코의 연구에 분명히 색다른 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존을 위한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Survival and Life)'에 진실로 가치있는 의미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조형사조 자체만을 얘기하지는 않고자 한다. 조형사조 그 자체만을 얘기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디자이너가 단지 디자이너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의 비극이 몰고 온 엄청난 사회적 격변기에서 발생된 아르 데코가 어떤 조형적 가치로 주목받아야 하는냐는 문제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 거기에서 발생되어 나온 다른 여타의 조형이념들이 이것에 어떻게 영향받았느냐 하는 문제의 제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두 디자이너는 결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가 당연한 '사회적 책임'을 떠나는 것이 아니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디자이너에게 단지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은 있을 수 없고 다중(多衆)을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전쟁과 평화가 주는 정치, 사회적 의미를 아르 데코의 조형정신에서 깊이있게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 2. 아르 데코의 발생

### 2-1. 발생의 근원과 배경

19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색다른 한 전시회가 열렸다. 그것은 약 40년후 1960년대의 미술평론가들이 양식상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e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의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르 데코(Art Deco)였다. 그리고 그 전시회가 열렸던 시기의 사회적 배경은 매우 복잡한 상태였다. 일차대전이 끝나고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 전쟁의 상흔은

은 유럽에서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집단 굶주림에 빠져있는 미국의 상황"주1) 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은 단지 적대국들간의 군사적 해결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전쟁 이후의 정신적 충격은 모든 예술활동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모순에 대한 갈등과 투쟁" 주2) 이라면 당연히 전쟁 이후에 겪게되는 정신적 갈등은 디자인과 예술의 방향에 전환점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20세기 인류가 새로운 발견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러진 전쟁은 그로 말미암아 세계의 문명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무억에 종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공동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주3) 는 대목에서 일차대전 이후의 아르 데코가 전 유럽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하나로 엮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토록 아르 데코는 가치 국제적이었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 데코의 전시회가 열렸을 당시의 국제상황은 그렇게 행복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 당시의 시대상황은 오히려 "불길한 예감이 들만큼 매우 안락하지도 못했고 안전하지도 못했음(far more sinister, far less comfortable and secure)"주4) 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전후의 궁핍한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르 데코는 밝은 희망을 주는 다채로운 조형문화로 높여나갔다. "대담하고, 밝고, 순진 무구한 경향을 가졌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르 데코가 예술적으로는 높은 문화성을, 즉 "큐비즘과 러시아 발레의 복장에서 느끼는 절충주의 양식의 형과 색채,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 아트, 유럽의 퓨리즘(Purism)과 같은 높은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주5) 은 무엇일까? 이 질문 가운데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으로 높은 문화성' 아르 데코가 지니고 있음에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푸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예술적으로는 높은 문화성을 가지고 있다해도 당시의 경제·사회적 시대상황으로는 적어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평화시에 볼 수 있는 문화의 만개현상(滿開現象)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쟁 후에 경제침체에 희망을 잃은 대중이 허무주의를 달래기 위한 공공연한 사치와 방종의 한 양식"주6) 라는 주장과 더불어 "아르 데코 양식에서 보이는 빠른 선은 속도에 대한 은유인데 이는 전쟁이후에 얻게 된 강박관념을 뜻함"주7) 이란 주장에서 보듯이 전쟁이후의 허무와 불안과 그리고 거기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고싶은 몸부림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후의 다다이즘(Dadaism)이 반이성적 사회적 불안과 함께 그대로 아르 데코에 옮겨온 데 불과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사치성은 포스터에서 "카피엘로(Cappiello)의 환상적 양식화(fanciful stylizations of Cappiello)"주8)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르 데코는 왜 정말로 이토록 시대상황과 문화상황이 모순되게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아르 데코는 20세기 양식임이 틀림없고 국제적이었음도 틀림없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의 양식은 회화, 포스터, 가구, 패션, 영화, 보석, 도자기, 유리, 금속공예뿐만 아니라 빌딩과 집-건축으로서-을 장식하고, 요트와 자동차-운송기구로서-를 디자인하고, 라디오-제품으로서-를 디자인하고, 나이프-주방기구로서-를 디자인하는 데까지 그토록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장르를 가지고 빠르게 확

산되었던 것일까? 사회적 불안과 전후의 우울한 분위기에 도 말이다. 여기에 대한 <아르 데코 양식: A Guide to Art Deco Style>의 저자 아리 반 드 렘(Arie Van de Lemme)은 “새로운 재료로 양념을 곁들인 복고의 재현으로서 거기에 순수한 향수(Nostalgia)가 있기 때문”<sup>주9)</sup> 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만족스런 답은 아니다. 전쟁 이 끝나면 옛것에 대한 향수가 사람들의 심성 속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르 데코의 양식은 결코 복고적인 양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아르 데코는 현대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적 추세-대중의 취향으로서-에 따른 응답”<sup>주10)</sup> 이란 말도 그 원인을 밝히는 답으로는 적적치 않다. 거기엔 미술의 온갖 양식이 서로 혼합되어 나타난 복합문화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르 데코의 근원을 추적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sup>주11)</sup> 로 결론지으려 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본 과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책임있는 답은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Sarah Morgan)의 “여러 가지 가운데 여권이 신장되고 - 이것은 아르 데코의 소재로서 자주 여성과 동물의 암컷이 등장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도 모른다. 필자 주 저 소득층의 상태가 개선되면서 사회적 대변동이 일어났기 때문”<sup>주12)</sup> 이란 아르 데코 양식의 발생근거에 대한 설명은 ‘전쟁과 평화’란 본고의 부제에서 살펴볼 때 사회학적 접근(社會學的 接近)의 해석으로 다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답도 완전한 것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아르 데코의 저변에 깔려있는 경제적, 사회 심리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요구<혹은 욕구>가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형사조가 근대디자인으로 율아오던 과정에서 끼치는 시대적 영향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분석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아르 데코가 가진 조형정신의 깊은 의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2. 발생의 요소와 근거: < 전쟁과 평화 >

전쟁은 세계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평화를 위하여 가끔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아르 데코가 처한 시대상황을 전쟁으로 연관시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당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는 그의 저서 <침략에 관하여/On Aggression>에서 “전쟁은 인간본성의 표현인바 그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허사이며 인위적으로 자연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잘못된 시도”<sup>주13)</sup> 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쟁은 인류에게 “진화의 산물(Product of evolution)”<sup>주14)</sup> 이라고 밖에 더 설명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전쟁은 분명 인류의 비극이지만 그렇게 밖에 받아들 수가 없었던 것은 그 나름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었던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은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연속되어왔다. 마가렛 마드(Margaret Mead)는 그의 논문에서 “전쟁이란 사회적 발명(Social inven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발명의 전쟁은 한 차례의 사회적 행동의 모드(mode)가 끝나면 기능적으로 다시 같은 목적을 띤 또 다른 사회적 발명의 요구에 의한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sup>주15)</sup> 고 하였다. 이것은 전쟁의 변증법(辯證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증법

은 비록 전쟁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역사적 상황에 변증법은 적용되기 마련이고 미술의 양식에 있어서도 그러한 변증법은 일어나게 된다. 아르 누보에 식상한 프랑스 인들은 아르 데코로 넘어갔다. 그리고 아르 데코가 양식상 아르 누보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 데코는 아르 누보의 발전으로 해석되며 렌느 라리끄(René Lalique), 모리스 뒤프렌느(Maurice Dufrené), 폴 폴로(Paul Follot), 그리고 레옹 알베르 잘로(Léon-Albert Jallot)와 같은 아르 누보에서 일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초기 아르 데코의 대표적 인물로 활동하였음을 보면 양식상의 변증법적 발전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쟁사이든 양식사이든 그것의 발전형식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간의 이해관계, 경제의 파멸, 사회적 불안, 거기다 때맞춘 독재자의 출현은 전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갔으며 아르 데코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궁핍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사회적 의식(意識)과 책임감(責任感)’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게 했다.”<sup>주16)</sup> 그리고 그러한 의식은 당시의 어렵고 힘든 사회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르 데코를 더욱 밝고, 대담하고, 현란할 정도의 가시성으로 포장했는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어렵고 힘든 시대상황을 보다 밝은 ‘사회적 의식(意識)과 책임감(責任感)’으로 승화시키려는 유럽 디자이너들의 의도적 애환(哀歡)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정신분석에 의하면 “인간의 조절되지 않은 마음(혹은 조절되지 않은 무의식)은 정신적 내면을 변칙으로 이끌기 때문에”<sup>주17)</sup> 그러한 정신적 내면의 변칙이 당시의 어두운 상황을 오히려 밝고, 대담하고, 그리고 현란하게 연출하였던 것이다. 당시 프랑스의 정정(政情)은 1919년 11월 총선거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1924년 실시한 총선에서는 우파연합이 대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파연합도 재정정책의 실패로 국가예산의 균형을 잃고 프랑스의 하락은 그치지 않았고 프랑스인들의 경제사정은 말이 아니게 되었다. 제 1차 대전의 주전장(主戰場)인 서부전선의 대부분이 프랑스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전승국이었면서도 피해가 가장 심했다. 아르 데코는 바로 이 시기에 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민족도 전쟁의 어려움을 개척하려고 하였지 거기에 좌절하지는 않았다. 프랑스인들의 집단 의식도 그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집단의 가치는 생존적(生存的) 욕구, 심리적(心理的) 욕구, 정보적(情報的) 욕구, 대인적(對人的) 욕구, 집합적(集會的) 욕구 등의 많은 것을 충족시키는 데 있었다.”<sup>주18)</sup> 이 말은 한 마디로 아르 데코의 발생근거를 제 공하는데 매우 적절한 해답으로 보인다. 아르 데코는 전후의 생존(生存)을 위한 욕구 속에서, 허무와 황폐를 이겨갈 심리적(心理的) 보상욕구-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서-가 일어났던 것이며, 문화와 다양한 미술의 양식에 대한 내용의 정보(情報)를 가지고 싶어했었던 것이며, 또 전 유럽인들이 다함께 평화를 향해 참여하려는 집합적(集會的)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또 대중들 각자 각자가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해 보려는 대인적(對人的) 욕구가 일어났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전쟁으로 인하여 “노스텔지어(Nostalgia)적이고 문화염세적(文化厭世的)인 상태에서 공동체의 상실은 산업근대의 자기위협(自己威脅)과 자기지양(自己止揚)을 가져온다.”<sup>주19)</sup> 지만 적어도 그것이 프랑스에서만은 예외적이었음도 아르 데코를 발

생시킨 동기의 하나였었다. 왜냐하면 다른 유럽국가 국민들의 기질과는 달리 “프랑스인 들의 기질은 중화주의(中和主義)적이고, 개인주의적(個人主義的)이며, 자유분방(自由奔放)하고, 인간해방(人間解放)의 기질을 갖고있기 때문”<sup>20)</sup> 에 선블리 문화염세에 빠져 자기위협과 자기지양을 가져올 민족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형성의 특징에서 볼 때 아르 데코 이전에 같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아르 누보(Art Nouveau)의 자유분방한 곡선과 화려한 색깔에서도 잘 나타나 보임을 보면 알 수 있다.

### 3. 아르 데코의 일반적 양식

#### 3-1. 양식의 근원:

- 절충주의(折衷主義)
- 비체계적 감성주의(非體系的 感性主義)
- 기능주의(機能主義)

앞서 양차 대전 사이에 유행했던 아르 데코는 그 양식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아르 데코의 양식에는 많은 다양성이 있고, 그로 인한 복잡하고도 서로 상반되는 영향들을 끼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 데코의 특징은 20세기 전위미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추상(Abstraction)과 왜곡(Distortion)과 단순함(Simplification)을 모토로 하고있는 큐비즘이나 러시아의 구성주의, 그리고 이탈리아의 미래파의 요소 같은 것들이 아르 데코의 양식에 영향을 주었다.”<sup>21)</sup> 아르 데코의 주제로는 양식화된 꽃송이의 절서있는 배열, 젊은 여성, 엄격한 기하학적 구조의 문양, 동물의 암컷, 색채의 화려함, 문양의 과감한 생략과 때로는 지나칠 정도의 꼼꼼함이 주는 이중성, 장식의 환상, 빛과 소리의 다채로운 느낌, 고전과 현대의 어울림, 힘과 속도감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다. 엄격한 기하학적 구조의 문양으로 남성적이며 진취적인 양식이 보이는가 하면 아르 누보에서처럼 유연하고 섬세한 여성적 곡선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나의 틀로서 이를 양식화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마땅히 “장식의 절충주의(裝飾의 折衷主義/Decorative eclecticism)”<sup>22)</sup> 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또 소재로서는 왜 동물의 암컷이나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많은 예술작품에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르 데코의 소재에서 특이한 것은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의 암컷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다. 말, 참새, 독수리, 호랑이, 땡견, 불독, 닭, 고양이, 왜가리, 표범, 여우, 뱀, 코끼리, 돼지, 사슴, 잉꼬, 공작, 메뚜기, 곰, 물고기, 원숭이, 사자, 돌고래,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동물들이 암컷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매우 연약하고 약의 없는, 그래서 자연스럽기만 한 평화의 모습을 이것들은 담아내고 있다. 이 시기가 비록 전쟁으로 인한 민중생활의 침잠과 황폐로 인한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을 터인데도 소재가 주는 내용은 한결같이 평화를 갈구하는 밝은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프랑스 특유의 민족적 기질인 물상(物像)에 대한 비체계성(非體系性)과 감성적 요소(感性的 要素)들이 함께 하고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동물의 암컷과 물상의 비체계성, 그리고 감성적 요소들이 함께 어울려 아르 데코의 조형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엄격한 기하학의 선과 면, 대칭, 비례의 균정미(均整美) 등이 의도된 질서 속에서 심심한 고전적 야생과 현대감각을 오가며 아르 데코 조형의 극치를 형성하고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과될 수 없는 동물의 암컷과 여성성(女性性)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전쟁과 평화’의 측면에서 소재의 여성성을 어떻게 이 시기 대중문화의 장르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다. 여기에 관한 디데로르(Diderot)의 생각이 참조가 될 것 같다. 그에 의하면 “여성들은 유행성 야생에 굴복한다. 외면적으로 문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야생으로 남아있다. 여성들은 기묘한 어린이로서—정의, 덕목, 악습, 선, 분노 등이 여성 영혼의 표면에 부유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코 체계적이지 못하고 항상 순간에 복종하는 존재다.”<sup>23)</sup> 이 말은 아르 데코 특유의 조형성과 그것의 발생근거를 비체계적(非體系的)이고 감성적(感性的)인 요소들에 바탕을 둔 프랑스 국민 특유의 기질에 비유하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조형의 여성성에 대한 심리묘사이다. 즉 아르 데코의 저변에 흐르는 조형심리의 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대중이란 여성적이고 수용적이며, 전통적인 복종, 참을성이 여성으로 하여금 헌신할 각오를 하는 것처럼, 감동하기 쉽고, 변덕스러우며, 들뜨기 쉬운 존재”<sup>24)</sup> 라면 그렇지 않아도 비체계적이고 감성적인 기질의 프랑스 국민 대중들에게 있어 아르 데코에서 더욱 여성적이고, 더욱 감성적이고, 더욱 수용적인 - 아르 데코의 작품에서 평화(平和)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다양한 조형사조를 다채롭게 수용하는데 바탕을 두기 때문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것은 조형에 있어서 뿐만 아니었다. 그러한 다양하고 비체계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색(色)도 이러한 다양성의 몫을 하였다. 페니 스파크(Penny Sparke)는 <Design Source Book>에서 아르 데코의 다양한 색의 특징들에 관해서 말했다. 밝은 빨강, 쇼킹한 분홍, 자극적인 청색, 매혹적인 노랑, 탱고 오렌지색, 금색색조의 황금색, 백금색, 은색, 동색 등 수 많은 다양한 색의 잔치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과 색의 다채로움을 통하여 소재의 혼재(混在)와 복잡성에 근거한 장식의 극치를 보여줌이 그 특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모더니즘(Modernism)의 한 양식이었음 또한 20세기에의 기여였다. “사실 프랑스 바깥에서는 이미 기능주의가 빅토리아 시대를 마감하면서 장식미술의 이데올로기를 밀어내고 있었고, 독일에서는 1907년 독일공작연맹(Deutsch Werkbund)이 형성되면서 비엔나 세세션(Vienna Secession)운동과 그 몇 년 후의 글라스고 운동(Glasgow Movements)의 심장부에 논리학(論理學)과 기하학(幾何學)의 정신- 기능주의를 표방하는 근본 정신-을 진작시켜가고 있었다.”<sup>25)</sup> 처음엔 프랑스 이외의 유럽 국가로,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러한 모더니즘에 근거한 기능주의는 물건의 대량생산을 위한 상위개념의 ‘경제관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을 바로 아르 데코의 조형정신이 부추키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3-2. 양식의 분석(分析)

아르 데코의 조형사조는 지금까지의 다른 미술사적 조형사조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정치, 시대상황에 의하여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그 시대가 처한 “당대성(當代性/ Contemporaneity)”주 26) 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아르 데코도 여기에 예외일 리가 없었다.

전쟁은 우리 인간에게 불안과 허무주의, 그리고 방향상실을 가져온다. 미술과 문학에서 다다이즘은 20세기 초 방황하는 인간의 참상을 표출함으로써 기존질서를 회의케 하는 무방향의 예술운동이었으며 허무와 의욕상실에 기인한 사회심리의 한 단면이었다. 그러나 아르 데코는 달랐다. 그것은 결코 허무주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알려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르 데코의 작품을 잘 관찰하면 이곳 저곳에서 그 당시의 부정적 시대상황에 물들지 않고 인간생활의 가치를 다시 찾으려는 아름다움이 발견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관찰하면 아르 데코는 당시의 다다이즘에 대한 매우 자연스런 반발현상을 보여주며 인간의 본성의 아름다움과 미래의 희망을 정서적으로 나타내는 반 다다이즘 운동이었음이 발견된다. 전쟁의 아픔은 사회 전반의 생활에 깔려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아르 데코의 작품에는 희망이 있고, 빛이 보이며, 밝음과 “질서”주 27) 가 있고, 아름다운 멜로디의 소리가 보이고, 고전(古典)을 수용하는 모더니즘의 일체감이 보인다. 한마디로 전쟁의 허무에 억눌리지 않고 인간생활의 풍요를 구가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술사의 한 장이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소재의 선택과 조형, 그리고 색채의 사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소재의 선택에서** — 전쟁의 파괴, 생과 사, 황폐해 버린 정신세계, 무장한 군인들의 난폭성 등이 주는 어두움을 벗어나 평화를 상징하는 꽃, 밝은 색채, 젊은 여자, 그리고 애완화시킨 동물의 암컷, 폭포, 구름, 꽃 등과 같은 자연의 내용을 등장시킴으로서 피폐해진 정신을 자연 속에서 이완시켜 보상받고 싶었고,

· **조형에서** — 전후의 혼란과 무질서를 벗어나고 싶은 보상심리에서 질서정연한 곡선(曲線)과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직선(直線)을 기하학적 배치로 박진감 넘치게 사용하여 모더니즘적 조형을 추구하였다.

· **색채에서** — 전쟁의 폐허에서 더럽고 추하게 변해버린 삶의 환경을 노골적인 화려한 색의 조화로 보상받고 싶었다. 소재, 조형, 색채를 종합하여 아르 데코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려하면서도 순수성을 잃지 않았고, 복잡하면서도 단순성을 잃지 않았고, 시끄러우면서도 평화로움을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조형운동이었다. 그리고 “아르 데코의 조형이 어떤 때는 쉽게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다가도 다른 어떤 때는 지독히 진지하게 느껴지는 것”주 28) 은 당시의 삶과 사회상에

대한 희망과 절망의 교차에 이들의 마음이 갈등하는 때문이었을 것이다. 희망과 절망의 교차에 마음이 갈등하는 것은 일반 대중의 심리이다. “대중이란 인간들의 정서적 및 지적 퇴행을 나타내며 — ‘무의식의 어두운 세계’주 29) 를 통하여 정상적인 정신질서와 사회질서를 뒤죽박죽으로 전복시키지만 이러한 전복은 축제(祝祭), 종교행사, 전쟁, 애국적인 행사 등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주 30) 고 하였다. 여기서의 축제(祝祭)란 꼭 잔치나 페스티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의 축제, 즉 아르 데코란 축제는 전 유럽의 나라들이 참여하여 벌린 하나의 거대한 예술의 축제였었다. 그리고 축제에는 온갖 것들이 등장한다.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요소들, 현란한 것들의 뒤섞임, 편안한 것과 진지한 것, 빨강과 파랑, 공격적인 것과 수용적인 것, 등이 서로 대비됨으로서 각각의 특징을 한층 더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르 데코가 갖고있는 역사적 당대성(當代性/Contemporaneity)이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당대성이었다. 이렇게 해서 아르 데코는 양자 대전 사이의 어두운 사회상을 떨쳐버리듯 자유스럽고, 밝고, 로맨스적이고, 낭만과 꿈을 실어주는 정신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갔음이 틀림없다. 그것은 시대가 처한 상황에 우리 인간들의 몸부림을 역설적으로 반응해 보인 미술사의 한 모습이었으며, 바우하우스와 함께 근대 디자인으로 이행되어 간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은 아르 데코의 미국의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이 아르 데코의 양식을 경제주의와 기능주의의 디자인 이론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모더니즘을 태어나게 하였다. 모더니즘이란 다름 아닌 기계시대의 실현을 의미한다. “아르 데코가 미국에서는 최근 수 십년 동안 빠른 기술의 진전을 보았고, 산업생산에서 기계미학을 탄생시키게 되었으며, 산업과 미술의 협동작업을 가능하게 했고, 그에 의한 대량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르 데코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합성수지의 재료도 경험하였고 혁신적인 건설기술도 실험하게 되었다. 유명한 상품 거래인인 메이시(Macy)도 1920년대 중반 자기의 백화점을 이 진귀하고 새로운 아르 데코의 상품들로 전시하는데 주력하였고, 박물관들은 아르 데코 디자인을 대중에게 소개했으며, 뉴욕의 미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유럽의 장식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의 백화점,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생활과 산업과 문화가 아르 데코에 상당히 빠져있었는데 특히 뉴욕시의 크라이슬러 빌딩의 꼭대기 장식은 아르 데코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뽑히고 있다. 이 꼭대기 장식은 니르코스타(Nircosta) 금속으로 입혀졌는데 당시의 윌터 크라이슬러가 ‘매력적이고 위엄있는 색깔’이란 이유로 선택된 재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묘하다’, ‘추하다’, ‘걸작이다’ 라는 제 각각의 비판을 대중들로부터 받았다.”주 31) 그 만큼 아르 데코의 양식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보편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정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 데코의 추종자들은 취향상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이 시기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아르 데코의 유형을 만들어 나갔음은 1920년과 30년 사이의 유럽과 미국의 조형문화를 보여주는 특징인 것이다.

한편 아르 데코를 아르 누보(Art Nouveau)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르 데코가 시기적으로 아르 누보 이후

의 것이므로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것은 아르 데코의 조형사상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소재, 조형, 색채의 상호 비교이다.

· **소재에서** — 아르 누보가 소재를 많은 부분에서 식물의 넝쿨, 줄기 등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음에 비해 아르 데코는 동물의 암컷과 젊은 여성을 하고 있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르 데코가 동물을 소재로 취함은 아르 누보의 식물보다 더 활력적이고,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감각적으로 많이 느끼게 해주기 때문으로 본다. 식물은 움직일 수 없고 그것은 동적이지도 않다. 동양사상의 “음양(陰陽)의 해석에서 볼 때 음(陰)은 무겁고, 비활력적이고, 보수적이고, 식물적이고, 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양(陽)은 가볍고, 활력적이고, 진취적이고, 동물적이고, 맑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sup>주32)</sup> 을 고려해보면 아르 누보는 식물을 소재로 한 것으로서 이것은 동양의 음사상(陰思想)에 해당되고 있으며, 아르 데코는 이와 반대로 동물을 소재로 한 것으로서 흡사 이것은 동양의 양사상(陽思想)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연하자면 양(陽)은 맑고, 밝고, 움직이고, 가볍고, 상승적이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경쾌하고, 청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질을 아르 데코의 소재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소재로서 동물 가운데 특히 암컷과 젊은 여성을 등장시킴으로서 당시의 일차대전 후와 이차대전 이전의 유럽사회의 허무(虛無)와 불안(不安)과 사회심리적 침체(沈滯)를 의도적으로 밝게 해결해줌이 필요하였던 것이었다. “사회학적으로 개성화는 일차적으로 산업사회를 해체(解體/Auflösung)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 산업사회의 생활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교체(交替/Ablösung)하는 것”<sup>주33)</sup> 이라면 아르 데코의 개체적 특징·개성화—은 확실히 아르 누보의 양식을 해체(解體)하여 전혀 다른 유형으로 교체(交替)하였음이 분명하였다.

· **조형에서** — 조형에 있어 아르 누보가 대체적으로 무겁고,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엉켜있는 자유곡선을 다루고 있음에 비하여 아르 데코는 질서정연한 기하곡선과 나란한 평행의 원호(圓弧)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직선은 또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직선을 하고있음이 특징이다. 이러한 것은 거의 모든 장르에서 나타난다. 각종 공예나 건축, 회화, 조각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무희(舞姬)의 패션이나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질서성(秩序性), 기하성(幾何性), 정연성(整然性), 대칭성(對稱性) 등은 아르 데코의 조형을 특징짓는 요소이다. 이러한 조형의 요소들은 전쟁의 무질서한 사회상으로부터 벗어나 의도적으로 질서성을 찾으려하는 사회심리적 욕구의 한 단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형사적 측면에서 볼 때 아르 데코는 아르 누보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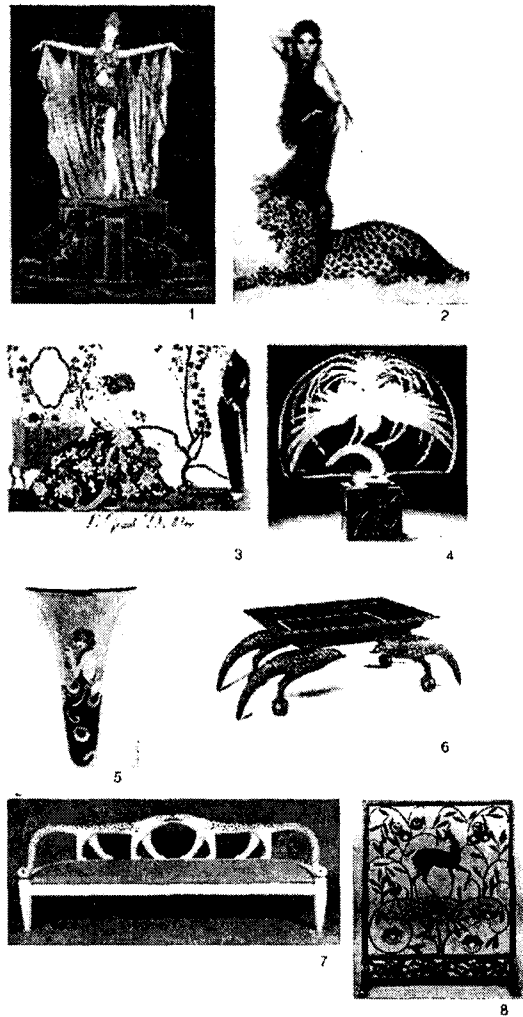
· **색채에서** — 색에 있어 아르 데코의 색은 아르 누보의 그것보다 오히려 “색을 위한 색(Color for color's sake”<sup>주34)</sup> 이란 비판을 받을 만큼 더 밝고, 자유스럽고, 현란한 색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색계열의 강한 색의 대비는 아르 데코의 작품을 한층 밝고, 강하고, 대담하게 느끼게 해주는 요

소였다. 그리고 이러한 색의 요소 역시 전쟁의 무질서한 사회상으로부터 벗어나 의도적으로 ‘화려한 평화’를 꿈꾸었던 사회심리의 한 단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아르 데코의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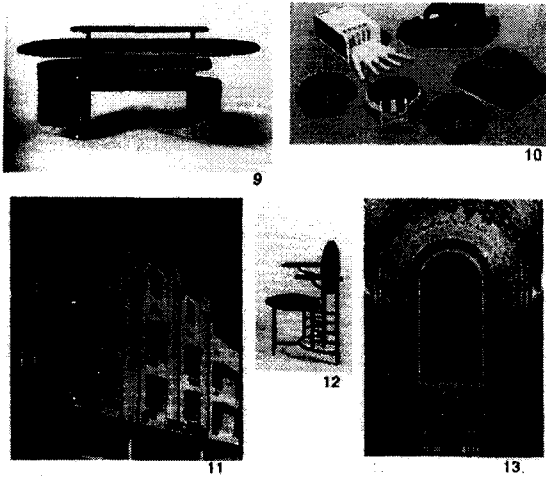
· **소재** : 사회의 허무와 불안, 그리고 사회심리적 침체를 <동물의 암컷과 젊은 여성>을 통하여 보상받고 싶었던 아르 데코의 소재.

예 :그림 1, 2, 3,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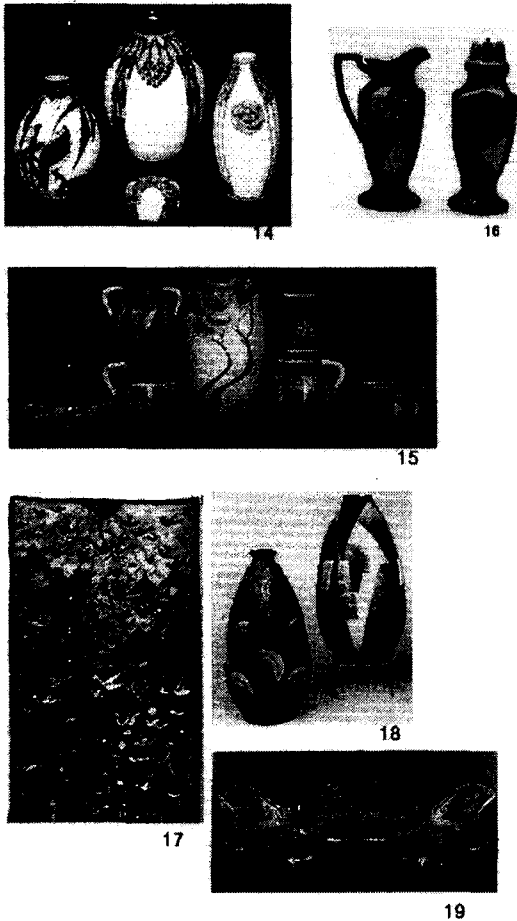
· 조형 :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질서정연한 기하곡선과 직선>을 통하여 보상받고 싶었던 아르 데코의 조형.

예 :그림 9, 10, 11, 12, 13



· 색채 : 사회의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자유롭고 현란한 색채>를 통하여 보상받고 싶었던 아르 데코의 색채.

예 :그림 14, 15, 16, 17, 18, 19



## 5. 결론

디자인에서 어떤 사조나 사상, 혹은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왔기 때문에 양차 대전사이에 일어난 아르 데코 역시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유럽인들의 환경에서 배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쟁의 결과는 비참하였고 그로 인한 시민의 생활은 외양적으로나마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대중은 항상 외양적인 것과 사건의 결과에 사로잡힌다”(주35)는 피상적 이유도 있지만 당시의 유럽의 뿌리깊은 문화의식은 그들 내면의 잠재된 불안과 피폐한 생활상을 아르 데코란 조형운동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절박한 사회적 총의(總意/Consensus)가 잠재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르 데코는 다른 예술운동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조형자체만을 언급할 수는 없다. 거기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심리적으로 그것의 조형사조를 연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러시아의 구성주의(構成主義/Constructivism)가 일차대전 이후 공산주의의 이념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됨으로서 그 시대의 정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듯이 아르 데코 역시 일차대전 이후 세계공황이 오기 전 그 시대의 정치, 사회상을 반영해주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서술로 필자는 아르 데코(Art Deco)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그룹화 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가. 정치, 사회적으로

· 아르 데코는 단순한 양식사(樣式史)적 입장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전쟁과 평화’란 정치,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양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원(根源)과 배경(背景)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정치의 재발견(Die Erfindung des Politischen)>에서 대중을 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에서 ‘개성화’의 중요성을 밝힌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아르 데코 시대의 대중은 분명히 아르 누보 시대의 대중과는 사회학적으로 서로 다른 개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 데코는 일차적으로 아르 누보의 산업사회를 해체한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아르 누보의 생활유형을 교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르 데코는 아르 누보의 양식을 해체(解體/Auflösung)하여 전혀 다른 유형으로 교체(交替/Ablösung)한 운동의 한 모습이었다.

· 그런 면에서 아르 데코는 아르 누보와 양식사적(樣式史)적 입장에서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발전(發展)’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르 누보의 양식과 생활유형을 아르 데코가 각각 해체(解體)하고 교체(交替)하였던 때문이었다. 해체와 교체가 없는 발전이란 쉽게 기대하기 어려움이 사실이다.

· 미국의 할리우드 아르 데코의 스타일은 불경기의 재정적 불안정에 시달렸던 시민들에게 한 시대의 가벼운 위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 시기의 정치, 경제 사정이 불안정함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유머로 받아들여진다.



## 나. 역사, 문화적으로

· 아르 데코는 양차대전 사이의 유럽문화를 특징짓는 문화의 한 모습이다.

· 아르 데코는 취향상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이 시기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그 유형을 만들어 나갔던 1920년과 30년 사이의 조형문화의 한 모습이다.

· 역사에서 변증법적(辨證法的) 발전을 인정한다면 아르 데코도 역시 아르 누보의 변증법적 발전형태임을 알 수 있다.

## 다. 미술사적으로

· 아르 데코는 조형사적으로 아르 누보에서 모더니즘(Modernism)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의 한 모습이었다.

· 아르 데코는 고전양식(古典樣式)과 근대양식(近代樣式)을 다 함께 수용하는 절충주의(折衷主義) 양식을 취하고 있다.

· 아르 데코는 조형에서 질서적(秩序的)이고, 기하학적(幾何學的)이고, 정연(整然)하고, 대칭적(對稱的)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아르 누보처럼 무질서(無秩序)하고, 자유곡선적(自由曲線的)이고, 비정연(非整然)한 특징을 찾을 수 없다.

· 아르 데코는 색에서 대담하고, 밝고, 원색적이고, 현란하여 '색을 위한 색(Color for Color's Sake)'이란 조형운동으로 평가받는다.

## 라. 심리, 감각적으로

· 아르 데코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전후의 혼란과 무질서를 벗어 나고싶은 보상심리(補償心理)의 한 모습을 보여준 운동이었다. 즉 아르 데코에서 즐겨 쓰는 엄격한 기하곡선(幾何曲線)과 직선(直線)은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반대급부의 보상심리였고, 밝고 원색적인 색은 어두운 사회상에 대한 반대급부의 보상심리였다.

· 아르 데코는 포르시스(Donelson R. Forsyth)의 말처럼 유럽인들의 생존욕구(生存欲求), 심리적 욕구(心理的 欲求), 정보적 욕구(情報的 欲求), 대인적 욕구(對人的 欲求), 집합적 욕구(集合的 欲求) 등을 예술이란 이름으로 충족시킨 - 혹은 승화시킨- 대중운동의 한 모습이었다.

· 아르 데코는 당시의 유럽의 어려운 시대상황을 밝게 조명하고있는 의도적 운동의 한 모습으로 전쟁(戰爭)과 평화(平和)사이의 삶의 애환(哀歡)을 겪은 패이소스(pathos)를 보여준 운동이었다.

· 아르 데코는 소재에서 젊은 여성과 동물의 암컷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음울한 사회상을 동적이고, 활발하고, 젊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상으로 바꾸려 하는데 일조하였다.

· 아르 데코는 감각적으로는 비체계적 감성주의(非體系的 感性主義)를 표방하였다.

## 마. 산업적으로

· 아르 데코의 작품은 대량생산(大量生産)과 대량소비(大量消費)를 가능하게 하는 20세기의 산업구조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

· 아르 데코가 미국에서는 매우 빠른 진전을 보였고, 특히 산업생산에서 기계미학(機械美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산업과 미술의 협동작업을 가능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서술로 아르 데코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조형적 이중성을 말할 수 있다. 즉 아르 데코는 '화려하면서도 소박함을 잃지 않았고, 복잡하면서도 단순함을 잃지 않았고, 시끄러우면서도 평화로움을 잃지 않았고, 혼란스러우면서도 질서정연함을 잃지 않았던 복고와 현대의 어울림이었다.' 끝.

## 참고문헌

- 주1) Arie Van de Lemme, A Guide to Art Deco Style, Magna Books, 1992, P.16. 여기서 당시의 경제공황 때에 빵과 수프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뉴욕 실업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 주2)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Merriam-Webster Inc., Publishers, 1986, P.2575.
- 주3) Encyclopaedia Britannica, Volume 23, P.192
- 주4) Arie Van de Lemme, op. cit., P.17.
- 주5) Penny Sparke, Design and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986, P.112.
- 주6) Ibid.
- 주7) Penny Sparke, Design Source Book(현대 디자인의 전개), 미진사 편집부, 1990, P.103.
- 주8) Alastair Duncan, Art Deco, Thames and Hudson, London, 1988, P.150.
- 주9) Arie Van de Lemme, op. cit., P.26.
- 주10) Sarah Morgan, Art Deco: The Future Style, Gallery Books, New York, 1990, P.9.
- 주11) Edited by Mike Darton, Art Deco: An Illustrated Guide to the Decorative Style 1920-40, Wellfleet Press, New Jersey, 1989, P.7.
- 주12) Sarah Morgan, op. cit., P.8.
- 주13) Edited by Charles R. Beitz and Theodore Herman, Peace and War, W.H. Freeman and Company, San Francisco, 1973, p109.
- 주14) David W. Ziegler, War, Pea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81, P.112.
- 주15) Edited by Charles R. Beitz and Theodore Herman, Ibid.
- 주16) J. Murray Luck, The War on Malnutrition and Poverty, Harper & Brothers, London, 1946, P.63.
- 주17) Fulton J. Sheen, Ph.d., d.d., Peace of Soul, Whittlesey House, McGraw-Hill Book Company, Inc., New York, 1949, P.95.
- 주18) Donelson R. Forsyth, Group Dynamics,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연구실 편역, 학지사, 1996, P.62.
- 주19) Ulrich Beck,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문순홍 역, 거름사, 1998, P.105.
- 주20) 이규태, 서양인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1985, P.289-320.
- 주21) Alastair Duncan, Art Deco,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88, P.7. / Mike Darton, op. cit., P.8.
- 주22) Penny Sparke, op. cit., P.112.
- 주23) Dideror, Über die Frauen, in : Erzählungen und Gespräche, Frankfurt/M., 1981, P.171.
- 주24) Serge Moscovici, L'âge des Foules,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6, P.184.
- 주25) Alastair Duncan, op. cit., P.9.
- 주26) 박규현, 製品디자인의 滿足要因 形成에 關한 研究

-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1995, P.52. 한 시대의 양식은 그 시대가 안고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윤리, 철학등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에 적합하게 형성되어 간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당대성(歷史的 當代性/Historical Contemporaneity)이라 할 수 있다.
- 주27) 이 질서는 조형적 비례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회질서의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 주28) Arie Van de Lemme, op. cit., P.8.
- 주29) 전쟁이란 어리석은 대중들-양 쪽 국민의 한 부분으로서의 대중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서로에게 살육과 학살의 만행을 저지름으로서 정서는 피폐되고 지성은 퇴행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정신질서는 엉망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정상으로 만회하기 위하여 대중은 통합된 아이덴티티(Identity)와 이벤트적인 행사, 혹은 집단암시(集團暗示)와 집단취면(集團催眠) -Serge Moscovici는 <군중의 시대 : L'âge des Foules> P.227-233.에서 대중의 심리를 암시(暗示)상태 와 취면(催眠)상태로 다루고 있다. 을 주는 축제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아르데코는 심리적으로 유럽인들이 그러한 집단암시와 집단취면의 뒷에서 벌린 일종의 예술의 축제마당이었던지나친 해석일까?
- 주30) Serge Moscovici, op. cit., P.386.
- 주31) Eva Weber, Art Deco in America, Bison Books Corp., New York, 1985, P.12.
- 주32) 박규현, 형태의 음·양사상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Vol.20, 1997, P.234-236.
- 주33) Ulrich Beck, op. cit., P.177.
- 주34) Mike Darton, op. cit., P.9.
- 주35) Quentin Skinner, Machiavelli,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강정인 편역, 문학과 지성사, 1993, P.210.